

## 개는 모피를 입은 아기?



(인간과 같을까? 개는 한 가지 중요한 점에서 인간의 아기와 다르다. Andrea Brody, Dogs for Humans Foundation)

개 주인들은 종종 그들의 개를 아이에 비유하곤 한다. 많은 이들이 심지어 그들의 개를 아이같이 취급한다. 이런 비교를 감상적이라 말하기는 쉽지만 최근의 연구 결과를 보면 개 주인들의 손을 들어 주고 있다.

한 팀의 과학자들은 전통적인 심리학 테스트를 통해 개들이 놀랍게도 10개월 된 아기와 같은 행동을 한다는 것을 밝혀냈다. 물론 아주 중요한 차이점이 있기는 하지만 말이다.

헝가리 부다페스트에 위치한 Hungarian Academy of Sciences 소속 인지행동생물학자인 조셉 토팔과 그의 동료들은 개의 마음이 가축화가 진행되는 동안 어떻게 변화하게 되었는지 궁금하게 여겼다. 그들은 36마리의 개들에게 대상불변작업(object permanence task)이라 불리는 테스트를 수행했다. 이 테스트는 아기들을 위해 개발된 것인데 방법은 다음과 같다. 실험자는 잠시 동안 아기를 보고 “여기봐, 내가 멋진 공을 갖고 있어” 라고 말한 후 장난감을 A라는 장소에 감춘다. 그런 후 아기에게 장난감을 찾게 하면 아기는 항상 A장소로 간다. 그런 후 실험자는 똑같은 방법으로 아기와 커뮤니케이션을 한 후 장난감을 B라는 장소에 감춘다. 하지만 아기는 장난감을 찾기 위해 여전히 A장소로 간다. 아기가 장난감을 찾는 행동은 과학자들이 테스트 중간에 실험자를 바꾸어도 같은 결과



박 소 라  
 동물생태학자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 대학원/국립과천과학관  
 sorapark@snu.ac.kr

였다(A장소로 감).

아기는 어른들이 세상에 대한 어떤 원리를 자신들에게 가르쳐 줄 것이라 믿고 있기 때문에 이런 오류를 만든다고 과학자들은 설명한다(예, 너의 장난감은 항상 A장소에 있을 것이다).

개들에게 똑같이 이 실험 방법을 썼을 때 개들은 항상 위에서 지적한 같은 실수를 한다. 개들을 테스트 할 때 실험자는 항상 먼저 사회적 신호(“집중해!, 여기봐!”)라 말하고 눈으로 바라봄)를 사용한 다음 장난감을 A장소에 감쳤다. 그런 후 실험자가 똑같은 방법으로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장난감을 B장소에 감추면 개는 항상 A장소를 찾아갔다. 심지어 “개들은 B장소에 장난감을 감추는 것을 명백하게 눈으로 보고 있음에도 그렇게 행동했죠.”라고 토पाल은 말한다.

늑대는 사람 손에 양육되어 매우 강하게 사회화가 되어 있어도 이런 실수를 하지 않는다. 그러나 개와 아기는 유사한 사회적 신호에 반응한다. 이 모든 것은 개가 매우 오랫동안 우리의 곁에서 살아왔으므로 인간의 의사소통을 더 섬세하게 이해하도록 진화해왔기 때문이라는 것을 나타낸다. 하지만 개는 아기가 그러는 것 처럼 우리로부터 세상에 대한 원리를 배우지는 못한다. 과학자들이 실험 중간에 실험자를 바꾸자(한 사람이 장난감을 A장소에 감추고 다른 사람이 장난감을 B장소에 감춘다) 개는 처음과 같은 실수를 하지 않았다. 이번 경우 개들은 장난감을 찾으러 B장소로 갔다. 이는 개가 인간으로부터 세상에 대한 원리를 배우지 않는다는 것을 나타낸다. 대신 개들은 단지 순서를 따른다. 다른 사람이 장난감을 B장소에 감추었을 때, 개들은 장난감을 찾기 위해 더 이상 앞선 실험자의 지시에 집중하지 않았다. 이 과학자팀의 발견이 SCIENCE에 게재되었다.

“이건 정말 멋진 연구입니다.” 미국 듀크대학 인지행동생물학자인 브라이언 헤어는 말한다. 헤어는 “이는 늑대와 개가 말(word)이나 눈 응시와 같은 사회적 신호를 사용하는 능력이 다르다는 것을 공고히 합니다.”라고 말한다. 그리고 이런 차이의 현격한 정도는 가축화의 영향이 개의 행동에 얼마나 지대한 영향을 끼쳤는지 나타낸다고 미국 콜로라도 대학 인지행동생물학자인 마크 베코프는 말한다. 또한 개들은 우리의 사회적 신호가 가진 중요성을 이해하는데 있어 매우 인간스럽기 때문에, 개들은 여전히 우리 인간의 사회적 스킬 진화를 탐구하기 위한 가장 좋은 동물 모델이 되고 있다고 이 과학자팀은 말하고 있다.

(출처: Science NOW Daily News By Virginia Morell, 2009. 9. 3)